



봉우컬럼

사랑은 배려다

얼마 전에 필리핀 집회를 갔었다. 집회를 마치고 나는 사랑하는 두 제자 신민호, 유상진 목사를 비롯한 교회 제직 이십여 명과 내 호텔방에서 제직회를 했다. 그런데 그들을 앉힐 의자가 마땅치 않아서 방바닥에 앉게 되었는데 문득 나는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침대마다 베개가 3개씩 구비되었던 것이 생각나서 함께 간 장로들과 스태프진의 각 방에서 베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모으니 베개가 거의 20개쯤 되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깔고 앉으라고 했다. 그들은 나의 세심함에 감탄했다.

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란다. 목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사랑이지. 그런데 사랑의 다른 이름은 배려란다. 배려는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되어보면 쉽게 할 수 있단다. 내가 너희들 입장이 되어보니 방바닥에 앉는 게 불편하겠구나 생각이 든 거란다. 그러니 목회를 할 때 내 입장에서 성도를 보지 말고, 성도들 입장에서 보라.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셨을까 하고 보라. 그러면 배려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날 거다. 내 자녀를 생각하듯 성도를 생각하고, 내 부모를 생각하듯 네 성도를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목회야. 사랑이 많은, 배려가 많은 목자가 최고의 목자란다."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나는 이번 기도원 집회 중 사택으로 상담하러 온 성도들을 바닥에 앉히지 않고 의자를 준비해서 앉게 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험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2:15~16). 이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고 배려다.

목적이 분명한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봄철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주시는 영적 보약, 춘계산상집회가 큰 은혜 가운데 3박 4일의 일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만이 있으시다"는 충격적인 설교로 시작된 춘계산상집회는 "천국생활을 하려면 귀신을 쫓아라", "목적이 분명한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주옥같은 말씀들로 모두가 첫사랑을 되찾는 시간이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삶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포기할 수 없기 때문

니다. 그는 분명 가뭄이 와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단에 올라온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루 7시간 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한 번의 설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목회 30년이요,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삶,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은 바로 그 삶 가운데 응

라운 체험을 하고 급히 기도원으로 연락을 해왔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밤에 출발하여 오다가 3시 20분경에 혈액을 타고 림프로 전이되었던 흑이 갑자기 사라지고 한나도 아프지도 않고 몸이 가볍고 평안하여 오다가 도로에 멈춰 눈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목사님께 전화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이 간증들뿐이겠는가? 집회 도중 고침을 받거나 돌아가는 중에, 혹은 집에 돌아가 지내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수없는 간증들을 우리는 국내든, 해외에서든 많은 집회를 통해 들곤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결코 거짓말



충분한 기도와 은혜 넘치는 말씀의 보약으로 첫사랑을 되찾은 춘계산상집회

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산에 올라온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까? 병을 고침 받아야겠다, 묵인 문제를 풀어야겠다, 첫사랑을 되찾아야겠다, 무언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이 삶을 이끌기에 피곤치 않습니다. 축구선수가 공을 갖고 풀만 잡고 있다가는 바로 빼앗기고 맙니다. 공을 차놔야 그 공을 쫓아가는 중에 동료에게 패스도 하고 골을 넣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없이 땅을 파는 사람은 세월아 네월아 하며 시간만 흘러 끝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뭄에 대비하여 마르지 않는 샘을 파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누가 보든 말든 그 샘을 다 파기까지 땀 흘려 일할

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히 암에 걸린 타 교단 목회자의 조카가 수술비 150만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목회자인 고모와 함께 기도원을 찾았는데, 집회기간 동안 은혜를 받고 밤에 자던 중 암 덩어리가 쏠아져 나가며 고침을 받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한 인터넷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강원도 모 수녀원의 두 수녀가 기도원을 찾아왔다. 그 중 한 수녀가 암이 혈액을 타고 림프로 전이되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성산을 찾은 것이다. 집회 기간 동안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더니 집회를 마치고 강원도 수녀원으로 돌아가던 중, 놀

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돌아해보면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도 2000년에 7명의 캐나다 목회자의 참석으로 비롯되어 훗날 1,000여명의 목회자가 참석하는 매머드급 세미나로 발전하였다.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잠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사님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은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꿈꾸는 듯한 역사로 응답해주실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한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은택 전도사



드론으로 촬영한 예루살렘기도원 전경



성령충만으로, 성령충만으로 뜨겁게 찬양



영·혼·육 모두가 튼튼해지는 춘계산상집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7:6~23)

기본에 충실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

서울에 효자동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가 ‘효자동’이라 불리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동네 어느 집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약주에 취해 그만 실수로 이불 밑에 어린 손자가 있는 줄 모르고 베고 자는 바람에 손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손자를 죽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쿨쿨 잤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며느리가 방에 들어갔다가 놀라 아이를 안고 나와 숨죽여 울다가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이 자식아, 너는 왜 죽어서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너 때문에 이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으니 이를 어떡하면 좋으냐?”고 죽은 아이를 털썩 털썩 손바닥으로 쳐대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살아났습니다. 이 일이 동네에 퍼지고 임금님 귀에 까지 들어가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孝子洞)’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다들 “말도 안 돼.” 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 씻고 살펴봐도 효 없는 사회가 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효는 고사하고 늙고 힘없는 부모를 때리고, 외국에 갖다 버리는 신종 고려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침이면 정처도 없이 집을 나와 굶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세상입니다.

호자 집안에서 충신 나는 법이다

그러나 여러분,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 됩니다. 효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도덕도 따라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중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1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20:12)”고 하셨습니다. 효가 약속 있는 첫 계명(엡6:2)이라 말씀하시고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3).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곧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효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맨 구레네 시몬이 복을 받은 것처럼, 억지로라도 효도하면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정조 때 어머니를 업고 용안을 보러 나온 효자가 상을 받는 것을 보고 불효자로 소문난 망나니가 어머니를 업고 길에 옆드려 기

다리자 임금이 모든 것을 알고도 똑같이 상을 준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효도를 하면 이 땅에서 잘 될까요?
성경에 보면 효성이 지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과부된 시어머니, 변
변히 먹을 것조차 없었던 시어머니를 따
라가며 효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
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
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습니다”(룻
1:16).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상
급을 주시니 만대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고, 다윗의 증조모로
귀한 인물이 되었습

요셉도 효
자입니
다 .
그



는
어 린
시절 멀
리서 양을 치
고 있는 형들에게
까지 심부름을 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힘에 겨운 나이였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형들에 의해 팔려 어려운 세월을 살았지만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한 것뿐 아니라 잡공제하고 조카들까지 쟁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받은 복은 헤아릴 수 없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청이었기에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여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제자 중 가장 오래 살았고, 밤도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엄청난 효자입니다. 돌아가시면서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

성이 지극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아이고,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라고 말씀하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듯 효란 순종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그는 어렸을 때 뱃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습다. 멋진 선장이 되어 바다를 헤쳐 다니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하고 집을 떠나려할 때 어머니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워싱턴은 그 때 생각



을 바꾸었다고 합니
다. '내 어머니
눈에 눈물
을 흘
리게
하

면
서 까
지 내 꿈
을 좇을 수
는 없다.'고 말입
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초석 목사

이 그를 높여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효자들은 어땠을까요? 노아의 아들 함은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든 아버지를 보고 형과 아우를 불러놓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었습니다(창9:25).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아버지를 죽이려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대로 왕권도 누리보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병사들에 의해 창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삼하18). 삼손도 이방여인과 사귀지 말라는 부모의 간곡한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국에는 이방여인에 의해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삿16). 제가 아는 분은 미국에 사는 아들이 들어오라고 해서 재산을 정리해 들어갔는데, 얼마 후 자살했습니다. 왜요? 의사인 자식이 병원 놀린다고 재산을 달라고 해서 쫓겨나 용돈을 조금씩 주더라고요. 그래

서 조금 더 올려달라고 했더니 아들 녀석이 “노인네가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고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얘기했더니만 며느리가 아들에게 쪼르르 얘기해서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그날 밤에 노인네 둘이서 술을 먹고 자살했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씁쓸합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신27:16),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

**철들자 이미 백발이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일찌니라”(출21:17),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
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
에게 먹히리라”(잠30:17)고 성경은 말씀
함으로 불효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
판이 얼마나 큰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
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르반’이란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고르반’이라는 명목으로 부모공양의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헌납을 서약한 것으로, 재산을 성전에 바치겠다고 서약하면 그 재산을 언제 바치든지 관계없이 부모 공양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유전을 미끼로 랍비들이 부모 공양에 소홀한 것을 예수님은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칭하시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고 통탄해 하셨습니다.

요즘 ‘신종 고르반’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할 수 있느냐고 가르치셨습니다(요일 4:20).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이 더 효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믿는 자들도 보고 효도하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효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유 좀 있을 때 효도하지.’ 하면 늦습니다. 효도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전화 드리게 되고, 자주 찾아뵙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작은 것이라도 드리게 됩니다. 자식이 귀하지요? 나 안 먹어도 자식에게 다 주고 싶지요? 당신 부모도 당신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자식이 봄이라면 부모는 이제 겨울입니다. 곧 해가 집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보다 좋은 걸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잘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효란 대물림입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효도하면 나중에 자식도 효도하고, 하나님도 복과 장수를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 말고 지금 효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객원컬럼::

::참된 깨달음::

베꾸는 삶

가물치 이야기

멕시코시티의 한 프로레슬링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이 앉아있었습니다. 한 늙은 레슬러의 은퇴식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레슬러는 프로레슬링에 입문해 항상 황금색 가면을 쓰고 화려한 분장과 현란한 개인기로 언제나 관중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23년 동안이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그는 53세의 중년이 되어 자신을 아껴준 팬들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링 위에 오르자 관중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황금가면을 벗었습니다. 그것은 2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황금가면을 벗은 그는 감격에 젖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교회의 목사입니다. 프로레슬링을 하는 동안 착한 우리 고아들을 잘 키워낼 수 있었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한동안 정적이 이어졌고, 곧이어 또다시 뜨거운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신분을 감추고 프로레슬링 무대에 올랐고, 그 수익금으로 3,000여명의 고아를 돌봐왔던 것입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주는 기쁨은 받는 즐거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할 줄 아는 마음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가 배려의 마음이고, 사랑과 배려의 실천이 바로 베꾸는 삶입니다.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보다 상대의 생각을 먼저

고려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상생의 법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몇 십 배의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할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거든 굶주린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라.” 오드리 헵번이 죽기 1년 전에 아들에게 읽어주었던 샘 레븐슨의 시 ‘아름다움의 비결’의 일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과 윗분들에 대한 올림사랑, 자녀와 아랫사람들에 대한 내림사랑, 형제와 이웃들에 대한 나눔 사랑을 우선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관섭 장로
kslee@kri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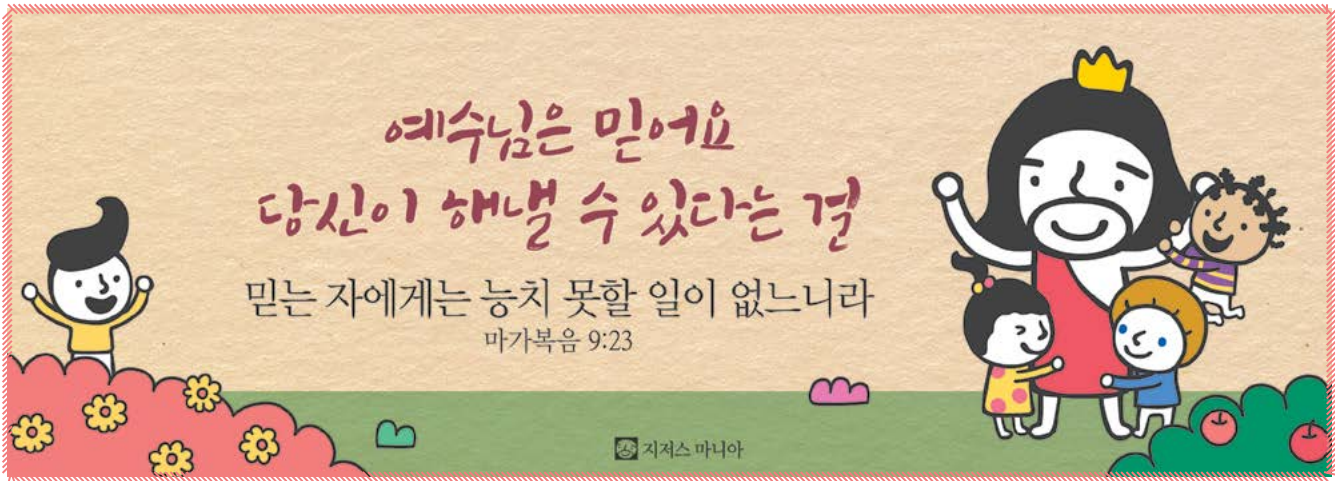
가물치라는 물고기를 아십니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물고기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먹이를 찾을 수 없어 배고픔을 참는 수밖에 없는데, 곧 부화되어 나온 수천마리의 새끼들이 천부적으로 이를 깨닫고는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한 마리씩 어미 입으로 들어가 어미를 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 시간이 지나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양은 십분의 일조차도 안 된다고 하니 대부분은 어린 자신의 생명을 어미를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합니다.

문득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무가 어릴 때는 산이 나무를 위해 존재하지만, 나무가 자라면 산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열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며 지극

정성으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식 열 명은 부모 한 명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네가 모셔라’, ‘형이 모셔야지 왜 막내인 내가 모셔야 하느냐’ 난리입니다. 가물치보다 못한 자들이지요. 회사에서도 신입 때야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지만, 경력이 쌓이면 스스로 일을 찾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가 잘 운영될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오로지 주님이 날 위해 뭘 해주실까 생각한다지만, 장성한 믿음이 되면 주님을 위해 뭘 해드릴까 생각해야 옳습니다. 전도도 알아서 하고, 봉사도 알아서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서는 안 되지요.

일개 가물치보다 못한 자들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증심편집실



::To Be Succeeded::

::사랑& 행복::

값보다 가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

남을 돕는 선행, 기부 등을 직접 행하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체내 면역력이 높아지는 기적 같은 현상을 ‘마더 테레사 효과 (Mother Teresa’s Effect)’라고 한다. 이 용어는 1988년 하버드대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생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실험 대상자 모두가 면역항체수치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히 줄어든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위한 완전한 헌신과 희생 그 자체다. 만약 그녀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고국을 떠나 인도로 향할 때, ‘효용성’을 고려하여 손익을 따졌더라면 어땠을까?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살아있는 성녀 마더 테레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으로 완성된다. 중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값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가치를 저울질하여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순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는 판단력과 통찰력이 최후의 선택과 결단을 좌우하게 되어있다.

1985년 96명의 베트남 보트피플을 구조한 전재용 선장은 공산화된 베트남을 탈출한 보트피플을 위해 자신의 경력과 미래를 희생한 이례적인 인물이다. 보트피플 발견 후 동료 선원들과 함께 한참을 번민하던 그는 버려진 국제고아들의 생명과 앞으로의 삶을 자신의 명예나 경력보다 우선순위에 두었고 곧 결단, 임신부를 포함한 보트피플 전원을 구조해냈다. 전 선장의 배는 보트피플을 발견한 26번째 배였다. 보트피플을 모른척하라는 회사의 지침과 명령을 어긴 대가로 그는 해고통지를 받았고 선원들도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누구라도 자신과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고백한 전재용 선장. 그러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다. 가치가 크면 클수록 지불해야 하는 대가와 희생도 크지만 종국에 얻게 될 기쁨은 상상이다. 역보화를 얻으려면 멀리 보고, 값보다 가치를 택하기에 힘쓰자.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꽃과 신록의 계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계절이 주는 따사로운 아름다움을 느끼다 보면 절로 가족들이 생각나고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어느덧 결혼하고 엄마가 되어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지만, 결혼 전에는 가정의 소중함을 지금처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로, 학교로 내달리기 바빴고, 제 일의 성취에 더 집중하고 지냈습니다. 돌아보니 20대에 가족과 더욱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아쉬우면서도, 한편 그간 열심히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가정이 편안하게 유지되도록 사랑으로 지켜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약 2천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약 600만 가량이 학살당하면서도 그 민족이 지탱되고 있는 것은 철저히 가족중심의 생활을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겼습니

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자 멘토가 되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정체성을 유지했고, 가정을 작은 나라이자 천국의 모형으로 믿으며 지켰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끈끈한 가족애를 바탕으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공동체이자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작은 천국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삶의 자양분이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려 가정을 주셨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을 겪은 가정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은 소중히 지켜져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나누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가족의 복을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고은
khjc77@hanmail.net

안산제일예수중심교회 창립

Good News



안산제일예수중심교회 창립예배(2016년 5월 10일)

안산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섰다. 안산제일 예수중심교회다. 지난 10일 안산제일예수 중심교회가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은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

“내 목회 철학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된다’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차선을 모릅니다. 매사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오늘날 내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정직하며, 지극히 작은 선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하려고 애쓰고, 지극히 작은 악일지라도 결사적으로 저항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십이지장충, 촌충은 악으로 잡을 수 있지만, 대충이란 놈은 여러분의 의지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대충을 못 잡으면 인생 종치는 겁니다. 떡 장사를 하든, 옷 장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마찬가지로입니다. 손님에게 최

선을 다하면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들 손님에게, 성도에게 갑(甲)질을 하려고 합니다. 갑 입장에서 대충대충 합니다. 장사하는 자가, 목회하는 자가 갑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장사가 잘 되고, 목회도 잘 되는 것입니다. 고객은 절대 서비스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을(乙) 입장에서 낮아져 섬김으로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생활에 접목하면 ‘장사가 잘 되길 원하나? 낮아져라, 목회가 잘 되길 원하나? 낮아져 섬겨라, 가정과 직장에 편안하길 원하나? 네가 을이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인천의 조의수 장로는 자기가 건설회사의 오너이면 서도 하청업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 덕분에 자기가 돈을 번다고 하면서 되레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하자 없는 건물을 짓더라고 그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7:12)는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마스터키가 바로 매사 최선을 다하

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예수님 대하듯 하는 겁니다. 노인들은 부모님 대하듯 하는 겁니다. 축복기도를 해줘도, 악수를 해도, 인사를 해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세요. 목회든 장사든 관심이거든요.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가지면 부흥하게 되고 대박 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고 큰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박은숙 전도사는 “이 교회가 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총회장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저 써주심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초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창립예배의 소감을 피력했고,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던 소성에 권사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풍성하게 창립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총회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또한 오해성 장로는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해 이 교회를 도와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라고 감격에 젖어 말했다. 박 전도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이 교회는 이름대로 제일의 교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안산제일예수중심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안산제일예수중심교회 박은숙 전도사



안산제일예수중심교회 창립멤버들과 함께



예배 후 모든 성도들을 안수해주셨다

한 전도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막 끝내려고 하는 순간, 처음 보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자 모든 자들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전도자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제가 그런 방식으로 전한다면 그 분을 기꺼이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분의 선한 모습을 가르쳐주시면 저도 그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던 분입니다. 당신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전도자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범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갈2:16).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뒷목 잡는 두통, 고혈압 때문일까?

증권사에 일하는 40세 하지근 씨는 업무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날은 머리가 무겁고 뒷덜미가 뻐근했으며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기도 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혈압이 높아지는 증상이라 여긴 하지근 씨, 병원을 찾아 혈압검사를 받으니 지극히 정상이다. 하지만 여전히 뒷목과 어깨의 통증은 그대로다. 그렇다면 혈압과 두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드라마 속 연기자는 갈등 상황에서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진다. 뒷목 잡고 머리가 아픈 것은 혈압이 높아져 그런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드라마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고혈압의 별칭이 ‘침묵의 살인자’ 아닌가. 하지근 씨에게 나타난 두통은 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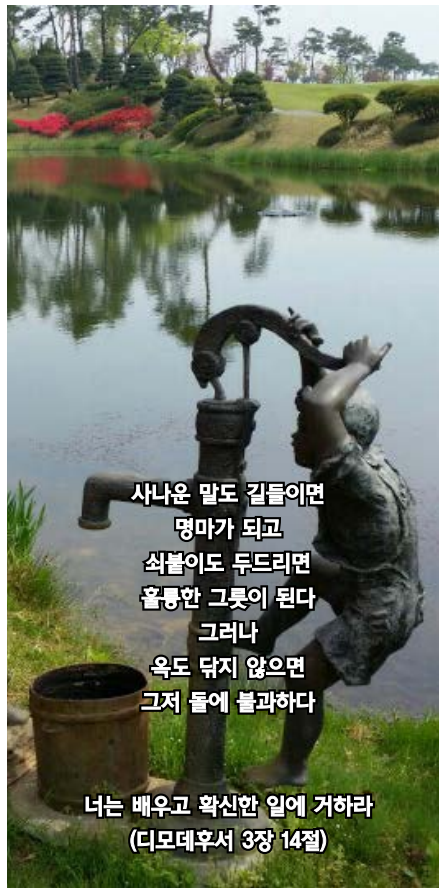
형 두통으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긴장했을 때, 목, 뒷머리, 어깨 근처의 근육들이 수축되고 긴장도가 높아진 것이다. 과거에는 긴장형 두통이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연구들은 신경생물학적 기전이 관여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경추 2번 신경에서 나오는 후두신경이 경추에 붙어있는 근육 사이로 나와서 머리 전체에 퍼지는데 목 근육이 경직되면 후두신경이 조이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신경의 염증은 통증을 유발하며 그로 인해 목 근육은 더욱 경직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머리 주변의 근육 압통이 나타나게 된다. 근막압통은 말초신경에 있는 통각수용기가 활성화되어 근막에서 통증을 감지하는 감수성의 증가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긴장형 두통은 불안, 시끄러움, 섬광, 언쟁, 피로, 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충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습관, 커피와 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수면부족, 운동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습관도 유발요인이 되므로 생활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도 치료의 시작이 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6:33~34).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명마가 되고
쇠불이도 두드리면
울퉁한 그릇이 된다
그러나
옥도 닦지 않으면
그저 돌에 불과하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